내 꿈은 누군가를 돕는 사람

학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와 봉사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웠던 백세현 학생의 고민은 아산재단의 재능나눔장학생에 선발되며 내려놓을 수 있었다.

백세현 학생은 어릴 적부터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다. 사회복지사였던 아버지와 평소 배려와 존중을 가르친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중학교 시절에는 때때로 집과 가까운 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을 돌보기도 했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6개월가량 지역아동센터에서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아동들을 방과 후에 지도하는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대학교에 진학하자마자 알아봤던 것도 봉사활동이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 최대한 손을 벌리지 않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적장학금을 바라며 학업에 집중하였고, 동시에 봉사활동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던 탓에 늘 시간에 쫓겼다.

게다가 그녀가 선택한 봉사활동은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 이런 이유로 목표로 했던 학비는 커녕 용돈 모으기도 쉽지 않았다.

'봉사활동을 잠시 내려놓을까?' 고민하던 백세현 학생은 1학년을 마치던 2020년 10월, 우연히 학교 홈페이지에서 아산재단의 장학생 선발공고를 봤다. 그 중 재능나눔장학생은 사회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지식 또는 재능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등록금을 지원받는 장학금이어서 그녀에게 안성맞춤이었다. 재능나눔장학생에게 필요한 1년간 150시간의 봉사활동 세부 계획서를 써서 제출하는 일은 봉사활동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백세현 학생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합격 연락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 봉사활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는 안도감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대학에 붙으면 등록금은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부모님에게 전한 약속도 지킬 수 있어서 기뻤고요."

봉사활동을 통해 책임감을 배운다

백세현 학생은 학교밖청소년과 늦은 나이지만 공부를 하고 싶은 장년층들을 가르치는 야학인 인천의 동암학교에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교육 봉사를 하고 있다.

"어린 시절 보육원이나 요양원에서 봉사했던 경험이 남아서 그런지, 소외된 주변의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

어요. 그 중 학교밖청소년들은 제 또래이기도 해서 그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검정고시 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적인 수업은 물론, 학생들의 교양에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코로나19로 중단됐지만 예전에는 연말 발표회나 연극제를 운영하고, 캠핑을 기획해 학생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그들의 고충을 듣기도 했다.

"학교밖청소년은 소속이 없다 보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달리 보호받기가 어려워요. 부모로부터도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받는 아픔도 많죠. 그렇다 보니 학교에서 적응이 힘들어서 나온 친구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기가 마냥 쉽지는 않아요. 특히 숙제를 내주면 잘 빼먹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밖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관심이라고 생각한다는 백세현 학생은 "동암학교 학생 대부분 사소한 일이라도 지켜보고 용기를 북돋아주면 기뻐한다"며 "학생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동암학교의 교사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로 이뤄졌다. 수업 준비뿐만 아니라 청소부터 비품 구매와 같은 자잘한 일까지 교사들의 몫이다. 사명감으로 충만한 봉사자들 덕분에 현재까지 약 49년간 야학은 유지될 수 있었다.

"교장, 교감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봉사자가 본인의 생업이나 학업이 있음에도 자기 일처럼 학교와 학생들을 돌봅니다. 인원이 많은 편도 아니라서 보통 학교의 선생님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그렇기에 봉사자들 모두 책임감이 가득합니다. 저도 이러한 점을 배우며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 사람

현재 야학 교육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백세현 학생의 꿈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

백세현 학생은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학번이다. 아쉽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탓에 동기들과 함께하는 캠퍼스의 낭만을 즐겨보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대면 수업이 중단돼 답답하긴 했지만,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니 통학 시간을 줄일 수 있었어요. 배우고 싶었던 일에 시간을 쓰거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죠. 봉사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도 좋았고요. 다양한 책도 읽을 수 있었답니다."

그녀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대두된 비대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만나서 이뤄지거나 해결했던 기존의 사회복지를 대신할 비대면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력을 키워나가고 필요한 방안도 알아보려 노력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 앱, 인공지능, 로봇 등을 복지에 활용하는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찾아보거나 국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사회복지학과를 다니고 있으니, 지금 제가 그리는 미래의 제 모습은 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를 돕는 일이면 어떤 직업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라고 자신의 꿈을 밝힌 백세현 학생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관심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이다"라며 오늘도 학업과 봉사에 전념한다.

글 **편집부**